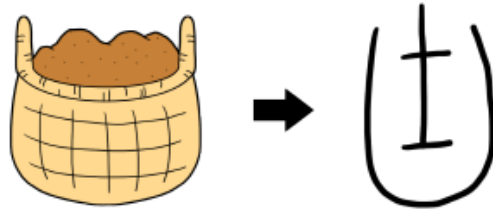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塊

흙덩이
괴

塊자는 '덩어리'나 '흙덩이', '몽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塊자는 土(흙 토)자와 鬼(귀신 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흙덩이'라는 뜻은 본래 由(흙덩어리 괴)자가 먼저 쓰였었다.

금문에서는 바구니에 흙덩이가 담겨있는 由 모습을 그린 由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土자와 鬼자가 결합한 塊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참고로 鬼자는 '귀→괴'로의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由

금문

塊

소전

塊

해서

회의문자①



愧

부끄러울
괴

愧자는 '부끄러워하다'나 '수치를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愧자는 心(마음 심)자와 鬼(귀신 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鬼자는 얼굴에 탈을 쓴 사람을 그린 것으로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愧자는 본래 女(여자 여)자가 들어간 媿(부끄러울 괴)자가 먼저 쓰였었다. 媿자는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이 탈을 쓰고 보조역할을 했던 것에서 유래한 글자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 있었다. 하지만 후에 女자를 心자로 바꾼 愧자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감정'과 관련된 글자임을 뜻하게 되었다.

媿

금문

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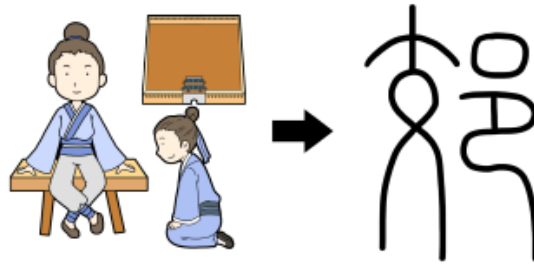
소전

愧

해서

3
-
23

회의문자 ①



郊

들[野]
교

郊자는 '야외'나 '근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郊자는 交(사귄 교)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交자는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사귀다'나 '오고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에는 '성 밖'이나 '성 주변'을 '야외'라 했다. 그래서 郊자는 '오고가다'라는 뜻을 가진 交자에 邑자를 결합해 성 밖을 오간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郊자는 잠시 나갔을 수 있는 성 주변이라는 뜻이었다.

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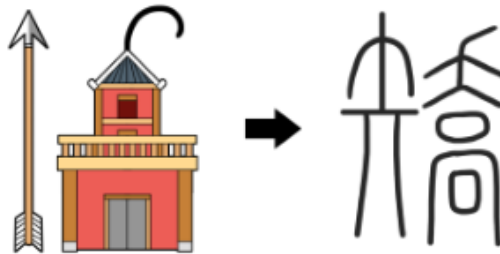
소전

郊

해서

3
-
24

회의문자 ①



矯

바로잡을
교:

矯자는 '바로잡다'나 '거짓'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矯자는 矢(화살 시)자와 矯(높을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矯자는 높은 건물 위에 갈고리가 걸려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矯자는 이렇게 갈고리가 걸려있는 모습을 그린 矯자에 矢자를 결합한 것으로 화살의 구부러진 곳을 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화살은 일회용이 아니므로 회수한 후 재사용해야 했다. 간혹 회수된 화살의 축이 구부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矯자는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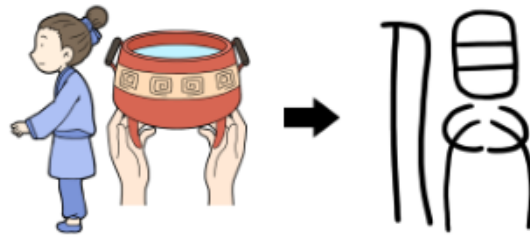
소전

矯

해서

3
-
25

회의문자①



俱

함께 구

俱자는 '함께'나 '모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俱자는 人(사람 인)자와 具(갖출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具자는 제기 그릇을 양손에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갖추다'나 '구비하다'라는 뜻이 있다. 具자에서 말하는 '갖추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여기에 人자가 더해진 俱자 역시 '갖추다'나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具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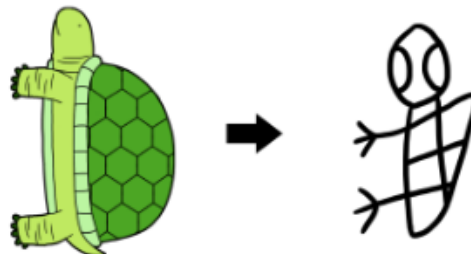
소전

俱

해서

3
-
26

상형문자①



龜

거북 구
| 거북
귀 |
터질 균

龜자는 '거북이'나 '거북 껍데기', '터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龜자는 거북이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龜자를 보면 거북이를 측면이나 正면으로 正면으로 그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의 龜자는 측면으로 그려진 것이 변형된 것이다. 그러니 龜자에 쓰인 크자는 거북이의 발을 묘사한 것이다. 龜자는 거북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거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지만, 거북의 갈라진 등 껍데기에서 착안해 '터지다'나 '갈라지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이때는 '균'으로 발음한다.

龜

갑골문

龜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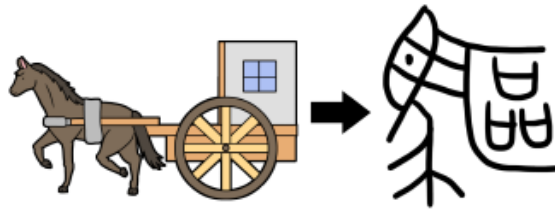
龜

소전

龜

해서

회의문자①



驅

물 구

驅자는 '(말을)몰다'나 '빨리 달리다', '내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驅자는 馬(말 마)자와 區(지경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區자는 선반 위에 그릇을 올려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驅자의 구성을 보면 마치 짐칸이 달린 수레를 말이 끄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니 區자는 발음역할 외에도 말이 이끄는 수레나 마차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驅자는 이렇게 말이 마차를 끄는 모습에서 '몰다'나 '빨리 달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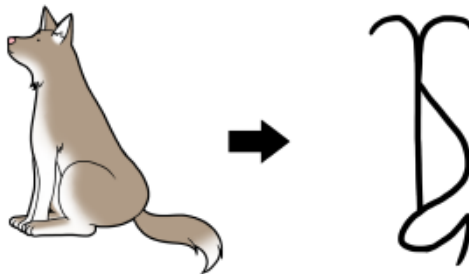
驅

소전

驅

해서

상형문자①



苟

진실로/
구차할
구

苟자는 '진실로'나 '참으로', '구차하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苟자는 犬(풀 초)자와 句(글귀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苟자를 보면 양쪽 귀를 쫘긋 세우고 있는 개가 犬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개가 주변을 '경계'를 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개가 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句자와 犬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구성만으로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苟자는 개가 주변을 철저히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진실로'나 '참으로'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이지만 지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구차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苟

갑골문

苟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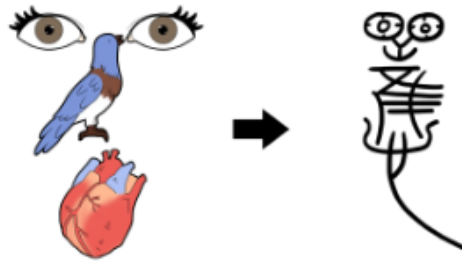
苟

소전

苟

해서

회의문자①



懼

두려워할
구

懼자는 '놀라다'나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懼자는 心(마음 심)자와 瞞(놀랄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瞞자는 새의 두 눈이 크게 두드러져 그려진 것으로 '놀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놀란 모습을 그린 瞞자에 心자를 결합한 懼자는 놀라거나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글자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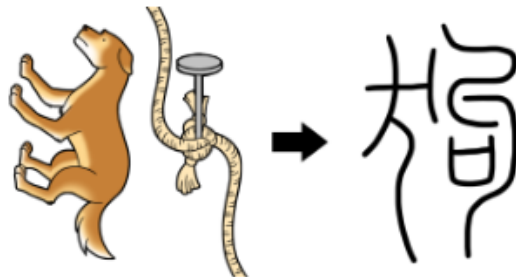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狗

개 구

狗자는 '개'나 '강아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狗자는 犬(개 견)자와 句(글귀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句자는 말뚝에 줄이 묶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개를 뜻하는 글자로는 이미 犬자가 있기 때문에 狗자가 따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다.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서는 이에 대해 큰 개는 犬으로 불렀고 작은 개는 狗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狗자는 이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개'나 '강아지'를 뜻하고 있다.



소전



해서